

1950년대 장덕조 소설에 내재된 여성 주체의 정념

-『女人哀歌』를 중심으로 -*

김윤서**

〈차 례〉

1. 들어가며
2. 50년대 장덕조 문학의 특성
3. 장덕조 소설 속 여성 주체의 정념
4. 나오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 장덕조 소설『女人哀歌』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내재적 갈등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정념’으로 주체화되었는지를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숙은 미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하는 인물로 아메리카의 욕망에 대한 환상과 찬미의 태도를 표출한다. 난봉(외도)을 일삼는 남편으로 공격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나, 낭만적 사랑에 대한 갈망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2184)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과 애착으로 ‘기대감’의 정념을 보인다. 전쟁상황이라는 격동 속에서 남편의 무능과 방관적 태도로 억척스러움을 보이는 정임은 ‘실망감’이라는 정념을 보여준다. 은영은 첫사랑 송찬의 배신과 재회,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생활로 ‘공허감’의 정념을 드러냄과 동시에 동반자살을 하는 비극으로 관습적 한계를 재현한다. 은영의 불륜과 자살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 등 당시의 복잡다단한 상황을 도덕적 정서로 봉합하며 애국과 반공 서사로 규범과 체제에 종속하는 1950년대 시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女人哀歌』는 전후 강한 모성과 반공주의 요구, 미국 문화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범주 속에서 길항의 의지를 보이는 여성의 모습을 ‘기대감’, ‘실망감’, ‘공허감’으로 표출하였다. 그러나 여성 인물의 정념화가 사회적 통념에 대한 미세한 균열을 초래하였을 뿐 국가 재건의 정당성을 근거에 두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관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고의 여성 주체의 감정적 결속과 ‘정념’이라는 화두로 관계 설정의 이행과정을 매개하는 다양한 ‘정념’ 행로를 통해 장덕조 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장덕조, 1950년대, 여인애가, 주제, 정념, 기대감, 실망감, 공허감.

1. 들어가며

1950년대 소설은 戰後 우수와 폐허 속에서 자생한 인간 삶의 궤적을 전위적으로 남겼다.¹⁾ 지배 혹은 배제 논리를 벗어나 여성

1) 김미영, 『한국 현대문학의 표상과 인식』, 청운, 2007, p. 13.

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戰後 여성소설은 작가의 현실인식과 체험적 단층들이 1950년대 문학의 특성으로 집약되어 제2 개화기로서 역동성을 보였다. 이런 저간의 상황을 여성적 시각으로 견지한 장덕조 문학의 심층에서 여성 주체의 ‘정념’에 대한 구체적 양상을 축출하여 수렴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고는 1950년대 장덕조 소설 『女人哀歌』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내재적 갈등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정념’으로 주체화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념’은 주체(subject)가 외부자극에 대한 감각적·본능적 자극을 넘어서 외부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인지(cognition)와 판단(judgment) 및 평가(appraisal)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자 실천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감각의 차원을 넘어서는다.²⁾ 흠은 인간의 모든 행태는 다양한 정념들의 상관관계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정념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개관된다. 그는 선이나 악, 고통이나 쾌락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욕구, 혐오, 비탄, 기쁨, 희망, 두려움, 절망, 안도 등을 직접 정념으로 지칭한다. 반면에 간접 정념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같은 원리에서 유래하지만 다른 요소(qualities)와 결부되어 발생하는 긍지, 소심, 야망, 허영, 사랑, 미움, 질투, 연민, 관용 등과 함께 이러한 요소가 수반하는 것으로 파악한다.³⁾ 본고에서 지적하는 정념은 간접적 정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한 사회의 작동기제를 이해하고 문화의 지층에 묻힌 역동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과 의식적 언어나 세계관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⁴⁾

2) 이명호 외 지음, 『감정의 지도 그리기- 근대/후기 근대의 문학과 감정 읽기』, 소명출판, 2015, pp. 6~7.

3) 데이비드 흠·이준호 옮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2, 정념에 관하여』, 서광사, 1977, p. 27.

4) 이명호 외 지음, 앞의 책, p. 13.

정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통상 “이성과 대립적 관계에 위치하며 비합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육체에 귀속되어 있어 격렬하게 느끼는 쾌감이나 고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정념이라는 용어보다 더 익숙한 ‘감정(sentiment)’은 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정동의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정서(emotion)’는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반응 혹은 운동으로서 강렬한 강도와 짧은 지속을 특징으로 한다.

‘정념(passion)’은 지속적이고 강렬한 정서로서, 강력하다는 점에서는 정서와 비슷하지만 지성화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구분되는 인위적이고 지속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정, 감성, 정동, 정념 등의 개념에 대해 확실하고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념기호학을 ‘감정기호학’이라고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념을 위의 모든 개념뿐만 아니라 정동, 열정, 성향, 감성, 감정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총칭적인 용어로서 사용한다. 정념의 표출은 심리적 반응이나 심리의 처소, 혹은 발현 등이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의 행동과 삶을 형성하는 개별적 정념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출처로 하고 있다.

흄은 『인성론』 2권에서 감각인상과 반성인상을 구분해 설명한다. 그는 감각을 거친 지각 이후에도 마음에 남아있는 모사를 관념이라고 지칭한다. 쾌락과 고통에 관한 관념이 영혼으로 향했을 때 그 관념은 욕망과 혐오, 희망과 공포라는 새로운 인상을 산출하게 된다. 이때의 인상은 반성인상으로 반성인상은 다시 기억과 상상에 의해 모사된 관념으로, 이는 다시 다른 인상과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반성인상은 차분하거나 격렬한 형태로 나타나며 정념들과 그와 유사한 나머지 감정들이 곧 반성인상에 속한다. 즉 감각인상은 감각됨으로써 갖는 쾌락과 고통을 의미하는 개념인 반면 반성인상(정념)은 감각된 이후 그 감각을 바탕으로 발전된 단계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⁵⁾ 광의의 범주에서는 감정 대신 정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안에 혐오와 욕망, 죄책감(죄의식), 연민, 두려움 등을 포함시킨다.

본고가 장덕조 소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지점에 있다. 장덕조는 ‘정념’에 노출된 여성 인물들의 한계와 가능성,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태도를 조명하며 상당수 독자층을 확보하는 대형작가로 성장하였다. 작품 면면히 인간 내면의 혼란과 기복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내면화로 기술하여 질곡의 50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여성 주체의 ‘정념’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 시기 여성 문제를 부각하여 전쟁이 남긴 정치·경제·사회적 인식의 바탕 위에서 담론적 지형과 전개 과정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한국전쟁기 이후 장덕조 소설의 한 축을 담당할 대중연애소설은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50년대를 풍미하였다.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다양한 감정과 느낌은 생의 곤경이나 비애에 대한 표현 방식이며,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순응 혹은 저항의 표출이다. 요컨대 장덕조 소설은 여성 인물들의 행동이나 감정에 드러난 ‘정념’⁶⁾의 자리매김을 통해 당대 삶 속 현상과 여성적·가정적 특징을 포착하여 정념의 새로운 위상을 부여 한다.

그의 문학은 지배담론에 균열을 드러내며 그 이행과정에서 변화되는 사회질서를 감지하는 주체로서의 여성 인물이 자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지배담론과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재생산되는 정서적 매개인 다양한 ‘정념’을 통해 시대 상황과 밀착된 보편적 자질을 표출한다. 戰後 여성 주체들은 분노, 우울, 공허, 슬픔

5) 양선이, 「흠에 있어서 정념과 자아」, 『철학연구』 55, 철학연구회, 2001, p. 124.

6) 본고에서 사용하는 ‘정념(passion)’은 로고스(logos)와 대립되는 그리스어 파토스(pathos)에 어원을 두고 있는 용어로 외연이 넓은 개념어이다. 경이, 욕망, 사랑, 미움,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과 정서, 정동과 욕망의 혼용어이며, 정념과 인접한 용어로 ‘emotion’, ‘mood’, ‘sentiment’, ‘feeling’의 단어가 있음을 밝혀둔다.

등의 감정과 험난한 행로를 가장 진전된 형식으로 표출한다. 이러한 ‘정념’은 사회의 거대한 힘에 짓눌린 허약한 주체들의 다양한 감정 상태로 내재적인 힘의 파동과 부딪힘을 토로하며 장덕조 소설이 지닌 주요한 근간을 형성한다.

최근에 이르러 장덕조 소설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나 주인공들의 ‘정념’을 통한 지속적 감정 상태나 근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장덕조의 50년대 작품 중 ‘정념’의 차원에서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작품을 대상으로 개별 인물의 내면에서 발현된 고뇌와 분투, 실질이나 연속성의 문제, 저항과 봉합 등 새로운 문제 틀에 시선을 돌려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유의미하다.

장덕조 소설에 내재된 여성 주체의 ‘정념’은 인간 내면의 혼란과 기복의 기본적인 심층의 층위에서 공통적인 정념의 양태를 부여하고 있다. 정념의 행로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인물들의 양태화는 작가의 탁월한 심리묘사와 더불어 정념의 초점화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의 연구 방법론으로는 그레마스의 정념 기호학⁷⁾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파토스(pathos)로 지칭하는 정념(passion)을 기본 개념으로, 텍스트를 지배하는 여성 주체 ‘정념’의 구체적인 표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파토스는 욕정, 분노, 공포, 기쁨, 증오심, 연민 등의 ‘쾌락이나 고통의 일시적인 수동적 감정’을 일컫는다. 현재는 격심한 일시적인 감정의 고양 상태로 간주되며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욕정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⁸⁾ 그레마스는 모든 이야기에 내재해 있는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을 규명하기 위해 기호학 이론을 채택했다. 그가 제시하는 기호학의 규명은 내재해 있는 의미 체계에 관한 일반이론이며 담화나 텍스트에 드러나는

7) 홍정표, 『정념 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p. 4.

8)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p. 797.

의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⁹⁾ 따라서 작품의 여성 주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념의 분포에서 지배적 정념이 여타의 정념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보편적 자질을 확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심층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념’의 시각으로 접근한 대표적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명아는 감각적 결손과 정념 커뮤니티라는 화두를 통해 관계 맺음과 함께 있음에 대한 근대적 사유의 쾌락을 역사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30년대 이기영의 『서화』에 관한 논쟁과 해석을 출발점으로 ‘정념’을 둘러싼 ‘법’(총독부)과 그 대리인, 오래된 공동체의 관습과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모랄과 농민 사이 각축전의 형태를 논하였다. 그는 『서화』를 매개로 총력전하의 ‘모랄’을 둘러싼 각축전을 정동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재해석은 정동 이론의 다양한 문제 제기를 역사적이면서도 당대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평을 구축하였다.¹⁰⁾

김미현은 김사과의 분노 3부작 중 첫 장편소설인 『미나』를 세 층위(어휘·통사·담화)와 세 가지 도식들(서사도식·정념도식·긴장도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휘 의미론적 층위에서 ‘실망감→불만족→공격성’이라는 어휘소들을 중심으로 ‘공격성을 동반한 불만족’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소설적 서사로 형상화하였다. 정념도식에서는 5단계에 해당하는 ‘형상화→장치화→정념화→정동화→도덕화’의 통사론적 전개를 통해 그 초점이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¹¹⁾

홍정표는 정념의 기호학적 분석 도구인 ‘정념 도식’을 적용하여

9) 홍정표, 위의 책, p. 15.

10) 권명아, 「식민지 내부의 감각의 분할과 정념의 공동체 : 병리학에서 정념-론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론」, 『石堂論叢』 53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11) 김미현, 「분노의 문학과 정념기호학 - 김사과의 『미나』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44집, 한국기호학회, 2015.

형상화, 정념화, 도덕화 등의 단계를 거쳐 담화에 숨겨진 내면을 입증하였다.¹²⁾ 그의 기호학적 연구 방법은 관념적이고 가설적인 부분에 난해성을 보여 접근이 쉽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오은엽은 텍스트에 나타난 기호학적 정념을 분석하기 위해 주인공의 ‘정념’ 행로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내재적 구조를 밝혀 인물의 양태화와 세밀한 의식화 과정을 도출하였다.¹³⁾ 그는 김유정의 금광 소설(『金따는 룡밭』, 『금』, 『노다지』)에서 ‘기대감’의 기호학적 공식을 살펴본 결과 ‘분노’라는 정념 행로에서 두드러지는 실망감→불만족→공격성이라는 통합적 시퀀스의 단계를 진리 검증 양태화의 분석화로 인간의 행위와 의지를 밝혔다.

장덕조의 작품 세계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작가의 소설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변화되었다.¹⁴⁾ 다양한 주체의 욕망이 분출되던 시기인 50년대 여성의 삶과 정체성의 시원을 탐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점은 ‘정념’의 표상¹⁵⁾이다. 애정의 표상

12) 홍정표, 「김동인의 단편 소설 〈배따라기〉에 나타난 정념의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06; 홍정표, 「박경리의 『표류도』에 나타난 정념의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07; 홍정표, 「그레마스 기호학에서 ‘정념 도식’의 적용과 한계 - 이효석의 『화분』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08.

13) 오은엽, 「벌레 이야기에 나타난 분노의 정념과 서사적 상상력」, 『국제어문』 제78집, 국제어문학회, 2018.

14) 조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7; 김윤서, 「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1950년대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17.

15)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표상(Vorstellung)’은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이다. 그에 따르면 표상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며, 칸트가 물자체와 구분하는 현상계가 지닌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학문의 대상이 되는 세계라고 보고 있다(이서규, 「쇼펜하우어의 표상개념에 대한 고찰」, 『哲學研究』, 제88집, 大韓哲學會, 2003). 쇼펜하우어는 모든 표상을 직관적 표상과 추상적 표상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시간과 공간 형식으로 가시적인 세계 전체, 즉 경험 전체와 경험 가능성의 조건을 포괄한다. 반대로 후자는 개념으로서, 지상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Vernunft)과 관계가 있다(김 진,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읽기』, 세창미디어, 2013, pp. 75~76). 본고에서의 표상은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을 통해 분출되는 정념의 고찰은 시대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작가의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장덕조는 한국 전쟁기에 육군 중군작가¹⁶⁾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수행한 까닭에 당시 작품에서 표출된 ‘정념’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매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장덕조의 여성 주체 형성에 표출된 ‘정념’에 대한 고찰은 당대의 타자성에 대한 재인식과 궁극에는 격동기의 주체와 주체적 공존의 윤리와 대안을 살펴보는 주요한 문학적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주요 목표인 한국전쟁 이후 장덕조 소설의 핵심 테제인 ‘정념’이 어떻게 텍스트 안에서 미학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주목하여 당대의 모랄을 추적함으로써 정념이 수행하는 새로운 인식과 미학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여성 주체의 감정적 결속과 ‘정념’이라는 화두로 이행과정을 매개하는 『女人哀歌』¹⁷⁾의 ‘정념’ 행로를 통해 장덕조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50년대 장덕조 문학의 특성

장덕조(張德祚, 1914~2003)¹⁸⁾는 『제일선』에 단편 「저회(低徊)」를 발표하면서 등단 후 일제 말기 친일 작품을 다수 발표하며 총동원 체제에 맞게 서사화된 친일담론으로 국가주의에 동원된 작가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전시의 불안했던 요

표상으로서 전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16) 신영덕, 『한국전쟁기 중군작가연구』, 국학자료원, 1998, pp. 10~11.

17) 張德祚, 『女人哀歌』, 英雄出版社, 1954.

18) 본관은 인동(仁同)으로 춘금여사(春琴女史)·일파(一波)·노노자(怒怒子) 등의 필명을 썼다.

소들이 작가의 삶과 직업 생애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후 작품들은 거대한 어머니상과 남성성의 상실 등 여성적 의식을 고구하였다. 이전의 작품 세계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서정적, 신변소설적, 향토적, 사실적, 풍자적 특징들로 귀납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 이후의 연재소설들은 의식적으로 본격 문학에 접근하여 개인적인 담론과 자아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흔적을 통해 여성 인식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50년대 소설에는 ‘사회+가정’, ‘사회+연애’ 형태의 통속소설을 통하여 단일했던 대중소설 국면의 창작소설을 상당히 변경시켰다. 이러한 이면에는 한국전쟁 시기 장덕조가 종군작가로서 직업적인 의무를 수행했던 당시의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장덕조가 쓴 赤治下 90日間の 울분을 토로하며 「내가 본 공산주의」를 작성한 사실이며, 이 글은 장덕조의 유일한 정치 격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르고 阿附¹⁹⁾한 자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아낀다. 그럼으로 이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체면도 염치도 버리는 수가 없지 않다. 그러나 때가 경과한 뒤에 생각하면 흥흥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박과 굴욕에 찬 나날이 있었던 것이 생명을 잃은것보담 더욱 부끄러움다.²⁰⁾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장덕조는 고해성사에 가까울 정도로 이 시기 자신의 부역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글쓰기 안에는 戰時 잔류파들의 생존 전략이

19) 원문에는 ‘阿附’로 나와 있으나 (서동수, 『한국전쟁기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p. 78)이는 ‘阿附’의 오기로 본다. 본고에서도 서동수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阿附’로 표기한다.

20) 장덕조, 「내가 본 공산주의」, 『赤禍三朔九人集』, 國際報道聯盟發行, 1951. pp. 76~77.

포함되어 있다. 서울 수복 후 공산주의에 협력한 ‘부역자’로 낙인 찍히게 된 잔류파들은 공산주의에 감염된 ‘역병’이나 ‘마마’처럼 ‘박멸’ 혹은 ‘치료’의 대상이 되며 이들은 일종의 ‘씻김 의식’을 치러야 했다.²¹⁾ 이에 오제도 검사의 지휘로 국제보도연맹(國際報道聯盟)에서 『赤禍三朔九人集』이 간행되었다.²²⁾

1950년대의 여성 담론의 지형은 윤리적 파탄과 역사적 수난의 식으로 여러 측면에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전쟁 체험의 미흡과 현실 의식의 결여 등 평가절하된 여성 인식으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1930년대 여류작가가 대거 등장하여 신여성 담론이 획득했던 여권론에 대한 주장과 인식보다 일면 후퇴한 면이 있다. 반면에 장덕조는 당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담론의 현상을 재현하며, 지역 작가로서 전후 불안을 피상적으로나마 떨치려는 향락과 일탈 등 전후(戰後) 증상과 관련된 갈등과 대안의 문학을 담론화하였다. 이후 장덕조 문학 서사의 흐름은 개인적인 담론과 자아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대중연애소설의 전형적 구도로 귀결되면서 대중연애소설의 관습성을 지속시켰다.²³⁾

장덕조 문학에서 여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여성을 주요 인물로 내세우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설에서 역동성을 부여한 여성 인물의 애정 서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성장의 주체는 여성이며 항상 남녀관계가 중첩되어 표상된다. 이 시기 소설에서는 남성의 무기력함과 대비되는 여성의 강인한 생활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답습과 모방을 표상하는 인물로

21) 서동수, 앞의 책, pp. 78~81.

22) 오제도 편, 『赤禍三朔九人集』, 국제보도연맹, 1951, pp. 142~143.

23) 진선영, 『한국 베스트셀러 여성작가의 러브스토리 코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p. 164.

그러지기도 한다. 작품에 드러난 대다수의 여성 형상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보다는 性이데올로기와 권력의 문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²⁴⁾

장덕조의 작품은 대중에게 일탈의 긴장을 주는 동시에 기존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재확인하는 도덕성 회복의 촉구를 반영한 도식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애정 담론의 양상에서 표출되는 ‘정념’화 된 주체의 다양한 표상을 통해 도덕적 양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격랑의 50년대는 분열된 타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타자 의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장덕조 문학의 대중성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장덕조 문학의 귀감(龜鑑)은 전쟁기를 겪은 50년대의 불안한 상황에서도 총체적으로 문학의 미학적 완성도를 유지하는 점이다.辛酸(辛酸)한 삶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질곡의 시대에 인간의 보편적 ‘정념’에 대한 민감한 촉수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설을 형상화한 장덕조 문학의 ‘정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장덕조 소설에서 내보인 ‘정념’은 전쟁이 남긴 정치·경제·사회적 인식의 바탕 위에서 사회적 현상과 밀착되어 있고, 더불어 당시의 여성성을 배치하는 담론적 지형과 전개 과정에서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설의 배경은 현저히 도시 쪽으로 기울어졌고 1950년대 새로운 군상으로 부상한 전쟁미망인, 여대생 등의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연애담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장덕조 문학의 제반 특징은 소설에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정념’으로 표출되었다.

텍스트에 의해 드러나는 정념의 생성은 가장 기본적인 심층의 층위에서 의미 분절이 된 후 좀 더 복잡한 층위로 이행하며²⁵⁾ 이

24) “그러진 여성상이 ‘여성으로서 실재한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구축된 시선을 반영하는 이미지’라는 젠더 미술사의 공통 관점”(아케다 시노부·김혜선,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 2008, p. 269)을 이 글도 공유한다.

25) 홍정표, 앞의 책, p. 15.

를 도식으로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²⁶⁾

정념 도식	
생성 과정	단계 파악 방법
형성화(constitution)	긴장적 스타일, 강도, 템포
장치화(disposition)	양태 장치와 이질적 결합관계
정념화(pathemisation)	형상화, 사건화된 변동
정동화(emotion)	신체의 표출과 변화
도덕화(moralisation)	도덕적 담화

〈표 1〉

위의 〈표 1〉에 정립한 정념 도식은 담화나 텍스트에 표출된 정념을 논리적으로 분절한 것이다. 정념화된 주체의 생성 과정에 해당하는 단계를 파악하여 정념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며 이는 장덕조 소설에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50년대 장덕조의 작품 중 전쟁의 혼돈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여성 주체의 정념 행로를 담은 『女人哀歌』를 통해 위의 도식에 적용하여 내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女人哀歌』의 여성 주체들은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주체의 결혼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념’이 어떠한 행로를 구성하고 형성화하는지의 추적이 가능하다. 피난사회라는 넓은 담론의 의미망 속에서 내적 불안으로 젠더, 민족, 규범의 교란이 시대적 상황과 밀착되어 동시대의 ‘정념’을 추출할 수 있는 정합성을 표상한다. 기존의 헌신적 모성이라는 여성 상투형 이미지를 탈피하여 거세된 모성과 생존적 모성 혹은 전복적 모성으로 호명되는 변모된 모성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전후의 수난과 모티프를 다루면서 불륜과

26) 홍정표, 위의 책, pp. 157~186 참조.

정사라는 性腥風의 모습도 재현된다.²⁷⁾ 또한 연애 서사를 통한 애증을 넘어선 죽음을 통해 외부로부터 여성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불행의 단면으로 당대 사회를 비추는 역할을 한다.

50년대 장덕조 소설의 여성 주체 ‘정념’의 표상은 전후 아프레겔(Apre-guerre), 유엔마담, 가정주부, 자유부인, 전쟁미망인, 여대생 등 여러 부류의 인물을 통해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당대 사회 분위기와 여성의 연애 풍속을 재현한 구성을 취하여 대중문학의 위상을 높였다. 소설에서 주동인물인 여성 주체들은 중산층, 지식인이라는 기득권층으로서 독자들의 감각적 정서에 호소하여 흥미롭게 갈등을 풀어나간다.

전후 여성 인식을 직시한 장덕조 소설에서 소수의 보편적 질서를 보여주는 여성 구조주의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구조주의(structuralism) 법칙은 다양한 현상의 배후에서 그 현상들을 지배·조정·생산·규정하는 소수의 규칙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다.²⁸⁾ 구조주의는 주로 내러티브(narrative)에 대한 분석, 즉 서사학으로 집중되었다. A.J.그레마스는 이러한 구조주의의 이론을 구축하여 담화나 텍스트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작용을 체제나 조합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²⁹⁾ 그레마스의 이론에 따른 ‘정념’ 분석은 ‘정념’의 핵심이 주체의 일상적 표상으로 전달되며 애정의 관계에서 중요한 동인으로 작동한다. 여성 인물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행위의 ‘주체’라는 점과 50년대라는 사회집단과 남편을 객체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최근 이루어진 장덕조 소설의 연구적 성과는 미발굴 작품에 대한 관심³⁰⁾과 함께 이 시기 장르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장덕

27) 김연숙, 「전쟁 경험과 피난사회의 가정 - 장덕조의 『女人哀歌』(1953)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p. 223.

28) 오민석, 『현대문학이론의 길잡이』, 문학의 전당, 2017, p. 72.

29) 홍정표, 『정념 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p. 15.

30) 임경순, 「장덕조 장편소설 『십자로(十字路)』 연구」, 『우리말글』 83, 우

조의 작품을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곡의 시기인 50년대 여성 주체의 정념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장덕조 소설 속 여성 주체의 ‘정념’

장덕조 소설에서 성장과 갈등의 서사를 구성하는 주요 인물은 여성이며 항상 남녀관계와 중첩되어 있다. 긍정적 조력자나 부정적 적대자가 모두 남성으로 설정되어 변모된 시대적·문화적 환경에 맞서 위계화된 남녀관계의 단정적 규범을 탈피 혹은 순응하는 양상을 표출한다. 장덕조가 여성을 주요 인물을 내세우는 중요한 이유는 그의 장편소설이 대부분 연애서사 혹은 애정의 갈등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女人哀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쟁 직후 피난과 환도 과정에서 세 명의 여성이 공간과 장소를 거치며 경험하는 그들의 ‘정념’을 통해 정념의 생성이 파생하는 사회적 양상과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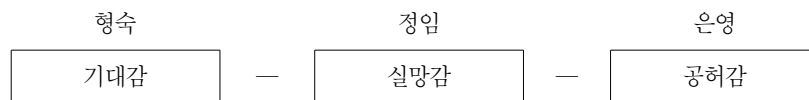
전쟁의 격동기 속에서 세 여성이 추구하는 애정의 감정은 위태롭고 상실감과 박탈당한 듯한 ‘정념’의 집합체로 표상된다. 상황에 따라 격렬한 감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의 양태화에 주목할 때 분노라는 ‘정념’으로 주제화할 수 있다. 감정과 사고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여성 인물들의 지배적 ‘정념’은 ‘기대감’, ‘실망감’, ‘공허감’이며 ‘분노’라는 핵심적 위상으로 결합되어 그들의 정서와 생활, 사랑의 풍속도를 복원해 낼 수 있다.

‘정념’은 감정 상태의 통합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의 인지적 차원에서의 의미작용과 더불어 몸체의 기질적인 느낌을 체감

리말글학회, 2019, pp. 355~378.; 김윤서, 「해방공간, 장덕조 소설의 젠더화된 인식 고찰 -장편소설 『十字路』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1, 우리말글학회, 2021, pp. 507~534.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장덕조의 50년대 작품을 살펴보면 전후 세대 속에서 애정 풍속을 형상화하여 다양한 정념을 표출한다. 50년대 장덕조 소설에 표출된 여성 주체의 대표적 정념은 ‘분노’이다. 분노의 사전적 정의는 “공격성을 동반한 격렬한 불만족”이며 분노의 정념이 출발하여 정념의 중심축을 이접하거나 분절한다. 이러한 정념은 주체가 겪는 단계에 따라 형성화, 장치화, 정념화, 정동화, 도덕화로 분절 가능하다. 정념 도식의 특징은 담화에 정념적 어휘가 표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념 세계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³¹⁾

이같은 정념 도식의 특징에 근거하면『女人哀歌』의 여성 인물들이 나타내는 ‘정념’의 표상은 크게 형성화(constitution), 감성화(sensibilisation), 정념화(pathemisation)의 세 가지 층위로 구현된다.³²⁾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기본적 ‘정념’의 표상은 아래와 같다.



〈표 2〉 정념의 시퀀스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에서 주된 양상으로 표출되는 ‘정념’의 표상을 세분화하면 형속의 기대감, 정임의 실망감,

31) 홍정표, 『정념 기호학』, p. 159.

32) 그레마스와 퐁타닐은 고유의 자율적 모델로 정념 도식을 정립하였다(홍정표, 「그레마스 기호학에서 ‘정념 도식’의 적용과 한계」, 『기호학 연구』 제24집, 한국기호학회, 2018, p. 12). 정념 도식은 담화나 텍스트에 표출된 정념을 논리적으로 분절하는 조직을 말하며, 표준 정념 도식은 5단계(형성화, 장치화, 정념화, 정동화, 도덕화)이다. 본고에서는 정념화된 주체의 행로에 따라 3단계로 재정립하여 정념 의미를 논의한다.

은영의 공허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성 주체들의 주된 정감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표상은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이 조건으로 작용하며 『女人哀歌』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세 여인의 ‘정념’ 생성의 접근 과정을 도식화할 때 이들의 공통점은 분노의 ‘정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기대감이라는 정념 - 형숙

‘기대감’은 분노의 정념적 상태의 출발점에서 양태화되어 공격성을 표출하며 최종적으로는 분노의 폭발로 이어진다. ‘기대감’의 세밀한 단계를 보면 단순 기대감(attente simple)과 신뢰적 기대감(attente fiduciair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기대감은 주체가 가치 대상과 연결하기를 원하는 관계이며, 신뢰적 기대감은 전자에 덧붙여 또 다른 주체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구축된다.³³⁾ 『女人哀歌』에서 형숙은 남편인 신태웅(의사)이 아내의 눈을 피해 습관성 또는 유희성 외도를 일삼으며 남편 시늉만 하는 인물이지만 지나친 애착 관계를 보이며 단순 ‘기대감’을 지속한다.

형숙이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추구하는 관심, 사랑받기 등의 ‘기대감’은 낭만적 사랑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실망감 → 불만족 → 공격성의 단계를 따라 ‘분노’라는 핵심적 위상으로 기대하는 결과와 다른 상황을 맞는다. 부부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기대하는 그녀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난봉(외도)을 피운다는 의심으로 주변을 향한 공격성을 보이며 긴장된 상태, 불만족의 상태에 있는 불안한 주체이다.

여덟살, 일곱 살, 이렇게 두아들을 두었을뿐 그뒤로 영터울이 떠버린 그는 설혼이 된 지금까지 남편에 대해 「올 오어 낫쌔」를 주장할만

33) 홍정표, 앞의 책, pp. 56-62.

큼 옛 정열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이상하게도 별로 유난한 애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었다.(중략) 아무튼 첫째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었다.³⁴⁾

위의 예문처럼 형숙은 여덟 살, 일곱 살 두 아들에 대한 모성적 자질보다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지나칠 만큼 갈구한다. “영화를 좋아하고 문학을 사랑한다”는 형숙은 낭만적 사랑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성격이다. 형숙이 추구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애착은 결혼이 ‘제도로서의 불완전성’³⁵⁾을 전제하는 범주라는 점과 남편의性に 대한 속물적인 면모를 감안한다면, 그녀가 추구하는 애정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상적으로 애정이 거부되면 인물들은 분노의 감성화를 거쳐 폭력 혹은 ‘공격적’인 정념으로 접어들게 된다. “남편의 방랑으로 번민”하는 형숙의 공격성은 분노의 당사자인 남편을 향하기보다는 외부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녀의 원초적인 감정의 불만이나 배설은 가끔씩 만나는 여고동창들과의 수다를 통해 해소한다. 형숙이 수다를 통해 분노의 정념을 여과없이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주된 대상은 기생이나 다방주인, 양갈보, 유엔마담 등이다. 이는 정념이 동시에 현전할 때 그 정념들이 자연스럽게 혼입되어 정신에 동요를 일으키며 지배적인 정념으로 흡수되어 격렬한 정념³⁶⁾을 표출하게 되는 상황이다.

외도를 습관처럼 하는 남편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34) 『女人哀歌』, p. 43.

35) 스티븐 켄, 임재서 역, 『사랑의 문화사』, 말글빛냄, 2006, pp. 630~667 참조 / 앤소니 기든슨,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pp. 75~88 참조. 스티븐 켄이 주장하는 ‘낭만적 사랑’과 간극을 보여주는 ‘제도로서의 결혼’이 갖는 불완전성은 빅토리아시대 소설의 주요 주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36) 흠은 차분한 정념과 약한 정념, 격렬한 정념과 강한 정념을 구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념은 선·악의 증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데이비드 흠-이준호 역, 『정념에 관하여』, 서광사, 1997, p. 164.

친구인 은영의 집까지 달려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분노를 표출하면 서도 다음날이면 “부부쌈은 칼루 물베기야”라며 친밀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며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의 멈추지 않는 난봉은 계속되며 형숙의 공격성 또한 반복된다. 신뢰하지 못하는 남편임에도 애착을 쉽게 버릴 수 없는 형숙의 분노는 엉뚱한 곳에서 곧잘 발화된다.

오후 네시, 미용원은 한창 바쁜때이다.

「비러먹을 것. 난 미장원에 오면 저년들 꼴 보기 싫어서」

형숙은 공연히 악의 있는 눈으로 방안을 도라다 본다. 정임도 덩다라 돌아 보았다.

한편 쏘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는 여자. 파마넨트 셋트의 그렸을 낀 채 공연히 왔다갔다 하는 여자. 그리고 또 얼송덜송한 서양침의만 입고 창앞에서서 행길을 내려다 보며 유행가를 웅얼거리는 여자까지 모다 기생아니면 유엔마담이라는 그런 종류의 여성들이다.

「망할년 저꼴을 허구두 길로 걸어왔을까. 미용원에두 외국사람 째차 타구 온게로구먼. 남부끄러울줄두 모르고 망칙허게」

「계집두 나쁘지만 사내들두 나쁘지 뭐」³⁷⁾

위의 인용문처럼 형숙의 공격성이 기생이나 유엔마담 등을 향하는 이유는 이들을 부패의 표상인 성적 타락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형숙은 이들을 남편의 외도를 유발시키는 나쁜 여성으로 평가한다.

한국전쟁 이후 여성의性は 논란의 대상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잘못된 성의식과 행위로 인해 여성의性이 왜곡된 형태로 폭발하여 사회악을 조장한다는 시각이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기혼여성을 부덕을 지키는 현모양처와 같은 건전한 여성과 사치와 허영에

37) 『女人哀歌』, pp. 145~146.

물든 경박한 여성으로 구분하여 여성을 통제하고 교화하였다. 또한 전후 사회는 사치를 사회악의 근원으로, 허영과 유행은 여성 범죄의 원인으로 표상하여 사회악의 근원을 여성과 연결하였다. 경박한 여성을 훈계하는 요인으로 에로틱한 분위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색채의 화장을 한 여성을 전후와 여성으로 일반화하여 이들을 불건전하고 부도덕한 여성으로 취급하였다.³⁸⁾

분노는 격렬한 실망과 모욕당한 자의 반사적 행동의 격렬함, 반응의 즉각성, 신속성을 전제³⁹⁾로 한다. 형숙의 공격적 태도 이면에는 속물적이고 위선적인 남편을 향한 강력한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 정념의 주체인 형숙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공격성의 양상은 내재된 분노가 정념화된 주체의 강력한 심적 표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형숙의 적대적 행위는 타자의 개입이 없는 자족적 태도이며 언제든 돌변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분명하다. 예컨대 남편의 애정 잣대에 따라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모되어 공격성의 정념이 발현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형숙은 밖으로 도는 남편에 대해 비난의 감정을 표출하다가도 남편의 감언이설에 낙담을 보이는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친밀한 관계의 기대감을 반복한다. ‘기대감’이라는 정념적 테두리에 머물며 남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념의 주체로 머물게 된다. 서울이 수복되어 전세가 역전되자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온 형숙은 임신을 하며 행복감에 빠진다. 이는 형숙의 임신으로 외박이 잦던 남편이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근거한 단순 ‘기대감’ 때문이다.

「응. 나두 이젠 태폴 잘해서 참 잘난 아일 하나 날 걱정야」그리고
는 한참 주저하다가

38)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해문집, 2004, pp. 85~96.

39) 홍정표, 앞의 책, p. 73.

「우리 딱터두 말이야. 또 이담에는 무슨 망년이 날지 모르지만 당
분간은 판짓않을 거야 글썄 웃지말라니까」 한다.
「여봐 정임이. 경험으로봐서 응, 집에 무슨 급한일이 생기면 그런
행동을 삼가요. 가령 임신을 했다거나 아이들이 알는다거나」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은 보증할 수 있겠단 말이로구나」
「그럼」 두 사람은 소리를 합해 웃었다.⁴⁰⁾

형숙은 임신을 계기로 남편과의 친밀감과 애착을 꿈꾸며 강한
‘기대감’의 정념을 갖게 된다. 결국 남편에게 애착하는 형숙에게
임신은 모성의 호명이기보다는 로맨틱한 사랑을 기대하게 한 관계
형성의 매개일 뿐이다. 형숙의 가정처럼 아내의 눈을 피해 양심의
가책없이 외도나 탈선을 일삼는 남편의 행태나, 사랑에 대한 갈망·
실망을 반복하며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아내의 모습은 미국문
화의 유입으로 인한 퇴폐적 흐름인 육체성의 강조와 이로 인한 정
신의 부재를 반영한 당대의 일면을 보여 준다.

이는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
기의 가정적인 혼란상과 사회적인 부패상을 그려 봄”⁴¹⁾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2. 실망감이라는 정념 - 정임

정임은 戰時 상황이 악화되자, 피난을 떠나는 “한 대령의 집 일
부분을 희생하는 대신”, “울망줄망한 연년생” 딸아이 다섯을 포함
한 가족을 신도록 주선 후 대구로 피난지를 옮겨 정착한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다. 반면에 정임의 남편은 전통적인 위상을 박탈당한
남성의 상실감과 무기력을 형상화한 남성의 퇴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대표적 인물이다. 대학교수인 남편 박정식이 무능한 가장으

40) 『女人哀歌』, pp. 181~182.

41) 정비석, 「작가의 말」, 『자유부인』, 고려원, 1985.

로 생존 전투에서 퇴행할 때, 정임은 피난지에서 난민의 피폐함을 극복하기 위해 딸라장수를 하며 일곱 식구의 생계를 전적으로 도맡는 등 유능한 근대적 주체의 모습을 보인다.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서 남편은 본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신분이 의심스러울만치 모든 부분에서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비해 정임은 고단한 삶을 책임지며 생활의 고초를 극복해 가는 등 봉건적 가부장제에 균열을 보인다.

서울에서 대구로 피난 온 후 열 살, 아홉 살 두 딸이 가난과 궁핍을 모면하기 위한 또래의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 대열에 합류하여 신문팔이⁴²⁾, 껌팔이, 구두딱이 등 자질구레한 일거리로 생업에 보탬이 되었다. 이러한 두 딸이 신문팔이 소년들과 시비가 붙어 물매를 맞고 집으로 들어오자, 정임은 결여와 열기가 공존하는 혼재적 현실⁴³⁾에서 좌초하지 않는 강인한 모성을 드러내며 생활 현장에 뛰어든다. ‘피난지에서 방을 얻을 걱정’, ‘단별밖에 없는 남편의 내의 걱정’, ‘다혜진 아이들 신발 걱정’ 등 가난과의 고투는 항상 ‘정임’의 몫이었다. 딸들이 소년들에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왔을 때도 남편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관자에 불과했다. 정임이 “백사장에 발을 붙인 듯한 마음으로 대구에서 생활을 건설해가며” 담배장수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친구를 통

42) 양진오는 논문에서, 1954년 대구의 경제, 문화, 풍속 등 대구의 로케일 텍스트로 독해되는 『마당깊은 집』을 대상으로 대구로 입성한 소년 길남이 대구의 구도심을 왕래하며 또래의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처럼 신문팔이 행상을 나선 모습을 포착하여 전후 대구의 결여를 재현한다. 남루한 차림의 거지아이와 초췌한 실업자들이 결여를 표상한다면, 양복쟁이, 양장차림의 젊은 여자, 군복차림의 한국군과 미군들의 활보하는 열기가 가득한 전후 도시의 모습도 포착하여 1954년의 대구를 결여와 그 결여를 상쇄하는 경제적 열기가 공존하는 도시로 기억, 재현하고 있다(양진오, 『『마당깊은 집』은 대구를, 대구는 『마당깊은 집』을 어떻게 기억하며 기억해야 하는가?』, 『韓民族語文學』第66輯, 한민족어문학회, 2014, pp. 535~539). 당시 가난과 열기 사이의 도시 풍경은 본고에서도 확인이 된다.

43) 양진오, 위의 글, p. 538.

해 딸러장수로 일을 바꾸게 될 때도, 남편은 傍觀하는 미미한 존재로 무능함을 드러내며 남성 권위의 상실을 표상하였다.

해병대의 인천 상륙으로 피난민들의 서울 입성 소식이 들리자 정임은 “몇 주일을 눈이 움푹 들어가도록 초조한 날을 보내다가” 명색이 가장인 남편에게 서울로 가자고 재촉하였으나, 남편은 의논 상대조차 되지 못하며 “난감한 표정으로 아내를 멀건히 바라볼”뿐 이었다. 결국 생존 전쟁을 치르던 살벌한 피난지를 떠나 수복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은 우여곡절을 거친 정임이 차 편을 구하여 귀환하는 그녀의 치열한 고투로 이루어진다. 간신히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니 포탄을 맞은 흔적이 가득한 집안에 세간은 약탈당하고 곳곳이 황폐해져 있었다. 경제적 회복이 급박한 이 상황에서 남편은 연구 서적이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할 뿐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다.

이후 다시 부산으로 2차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남편은 더욱 무기력한 태도를 보인다. 이에 정임의 역량 안에 내재된 기본적인 감정의 흔들림인 원망이 형성화 된다. 염치를 포기한 듯한 남편의 수동적 생활이 계속되자 고단한 살림살이는 절대적으로 정임의 몫이었다. 생계형 주부로 가정을 이끌어 가던 중 본의아닌 남편의 요정 출입을 우연히 목격한 정임의 감정은 대상에 대한 배신과 관련하여 분노의 감성화 단계에 이른다. 남편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거친 언어가 오가는 부부싸움으로 과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던 남편은 집을 나가게 된다. 남편의 부재 중 전세(戰勢)는 더욱 악화되었다. 전란의 소용돌이가 거세지자 비탄에 휩싸인 정임의 감정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전환되어 정념을 지배하기에 이른다. 정임의 남편에 대한 부정적 / 행위-의지는 전쟁이 악화되자 증폭된 불안감과 함께 더욱 확대되며 급기야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떠나게 된다.

‘실망감’에 머물던 정임의 분노가 부부싸움으로 표출되고 남편

의 가출로 이어진 상황은 당시의 무너진 가족주의와 가부장제의 부재 상황을 반영한다. 전쟁이 아버지 혹은 남편의 부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임은 헌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로 대체된다. 역동적인 지점은 부산에서 재회한 남편이 자책과 반성으로 귀가한 후 남편으로서의 질서에 안착하려는 이미지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인내(忍耐)와 헌신(獻身)만을 덕목으로 귀결되었던 지배담론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의의를 내포한다.

전쟁으로 인해 남성들이 대규모로 동원되면서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50%에 육박할 정도였고 “오늘에서 부의 창조자”이며 “생산적 담당자”라고까지 지칭될 정도로 50년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전쟁터에 나간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떠안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여성 개인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여성들은 가계의 책임자이며 가정의 주관자로 등장한다.

『女人哀歌』에서는 병사(病死)한 은영의 아버지, 정임의 무능력한 남편, 외도를 일삼는 형숙과 은영의 남편까지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남편을 대신할 ‘能婦’를 요구한다. 여성 인물들의 남편은 戰時와 避難을 배경으로 군열, 거세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지 못하며 완벽한 가장과는 거리가 먼 이중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이처럼 주요 인물들의 남편 역할이 현저히 축소되어 있고 그 존재감마저 희미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서사적 맥락이 형성되는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국가의 몰락과 남성의 약화가 궤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⁴⁴⁾

44) 김연숙, 앞의 글, p. 253.

3-3. 공허감이라는 정념 - 은영

장덕조 작품의 여성 인물들은 고학력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억압의 정체성을 복원하기보다는 가시화함으로써 충돌과 모순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女人哀歌』의 은영에게서도 표상된다. 은영은 현대여성으로 호출되어 “유한마담”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은영을 통해 억압의 경험과 정체성의 복잡하고 충돌적인 상황으로 파국적인 죽음에 이르는 ‘정념’을 포착할 수 있다.

목사인 아버지와 계모의 손에서 자란 은영은 여자대학 음악과를 졸업 후 스무 살 연상의 상처한 변호사 백선근과 결혼하여 대구에서 살고 있었다. 은영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때 저명한 목사였는데, 중병에 걸려 제대로 가장 역할(家長 役割)을 할 수 없게 되자 은영이 병든 아버지를 돌보다가, 첫사랑과 결별하고 재력가인 백선근 변호사와 결혼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⁴⁵⁾ 남편은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둔 가부장적 권위 의식의 소유자이다. 정치바람이 들어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이 신혼 3개월 쯤 은영에게 ‘자궁병(性病)’을 옮겨 불임 판정(不任 判定)을 받게 되어 아이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은영은 가끔씩 럭키 담배도 한 개씩 뽑아 피우며 “사랑없는 남편과 별거나 다름없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여보!」 하고 불러본다.

그러나 그곳에 나타나는것은 결코 남편의 모양이 아니었다.

다른 어떤 남자의 모습도 아니다.

여전한 공허-

45) 전근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등장한 남성인물이 근대적 세계의 주담당자가 되지 못하고 無能力한 남편, 不道德한 남편, 남편의 不在 등 급격히 弱화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女人哀歌』에서도 두드러진다.

「여보」하고 은영은 미안한 듯 다시 한번 자기마음속에서 남편의 환영을 찾으려했다.

그러나 남편은 역시 먼 사람이었다.

그는 구년동안 같이 부부라는 명목만 있었을뿐이지 남편에게 대해서는 실상 조금도 알지못하는 것이다. 아니 알고도 하지않았다.

동시에 은영은 남편에게 대해서 입과 몸도 굳게 지켰다.

감격도 쾌락도 분쟁도 알뜰도 없는 가정생활, 그 무미한 생활가운데서 그저 유일한 보람이란 간혹 놀러오는 동무들의 입에서 불만을 듣고 애정을 느끼고 그것을 위로하는 역할뿐이다. (중략)

부부생활이란 정말 생각했던 바와는 달랐다.

수염에 벌써 흰물이 들기시작하는 남편 옆에서 싫은것을 무릅쓰고 그래도 아내답게 지나보기는 그저 신혼의 한 두달, 석 달이 채 못되어 은영은 신병을 얻었다.⁴⁶⁾

은영은 “감격도 쾌락도 분쟁도 알뜰도 없는 무미한 생활”을 하던 중 전쟁으로 여고 동창생들이 대구에 모이게 되자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간다. 이들은 1940년 전후에 女高普를 다닌 자부심과 나름의 의식이 있는 신여성이었다. 그래서 종종 그들의 수다 속에는 “괜히 결혼들해서 고통을 사지”라든가 결혼으로 “사내들의 노예”가 되어 버린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한다. 정임과 형숙은 이들의 가정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준 비극적 사건을 ‘오랑캐’같은 공산당이 쳐들어왔다는 외부요인으로 단정한다.

『女人哀歌』는 “중군기자단의 보고강연회가 열리고 뉴-쓰 영화가 상영”된 전쟁상황이라는 서사를 배경으로 戰時와 避難이 혼재한 상황에서 애국을 부각하며 국가재건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반공 서사의 표상을 주목할 수 있다. 소설에서 반공 논리는 반공주의, 민족, 국가 재건의 결합관계를 형성하며 도덕성을 전제로 흑백논리의 성격을 보인다.

46) 『女人哀歌』, p. 29.

1950년대에 반공주의는 전통과 근대의 혼재 상황을 국가적으로 통합 주도하는 이념적 거점으로서 강화된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탈계급화되고 탈전통화 된 개인들은 전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문제”⁴⁷⁾와 더불어 이미 대두된 것이다. 1949년 정부가 신교육법을 제정하면서 문교부에서 모든 교과서 및 서적에 새기게 했던 〈우리의 맹세〉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의 맹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처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	---------------	-------	---------	---------------	---------	------	-------------	---------	-------------

(『女人哀歌』 - p. 240)

위의 내용은 국가주의에 입각한 승공(勝共)⁴⁸⁾으로 요약할 수 있다. 『女人哀歌』에서는 이러한 반공과 서사의 길항 관계를 작품에서 구현하여 작품 말미에 〈우리의 맹세〉를 적극적으로 수록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반공 이념의 강력한 자장은

47) 강인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p. 197.

48) 해방 이후 좌우대립의 혼란을 겪다가 1948년 남북한 정부가 따로 수립되면서 남북대치·경쟁 체제 안에서 ‘승공’의 이념이 대두한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가 재건을 위한 통합을 위해 전쟁의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으로서 ‘반공’ 이념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간다. 이러한 반공 이념이 확고해지는 것은 5.16이다.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설립되고, 반공법이 통과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제1권, 역사비평사, 1998, 참조).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의 기치와 함께 일정한 연속과 굴절을 겪으면서 체계화되고 제도화되어 간다.

「깃땀!」이란 저주와
「그 육혈냉이 걸은 여석이……」하는 육설이 제절로 나왔다.
「깃땀」은 대구에서 딸라장수를 하는 동안에 어찌다 배운 입버릇으로 동족상잔의 화근을 맨들어 정임이네식구를 가진 고난속으로 몰아넣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내는 원한이다.⁴⁹⁾

위의 인용문처럼 전쟁으로 인한 상실의 체험은 여성 인물의 발화로 극명하게 표상된다. 피난민, 상이군인, 무능력자, 결인, 양갈보, 비정상적인 생활의 소지자는 대부분 공산주의자로 인한 훼손의 흔적이다. 이들이 갖는 정신적인 상실감은 비판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전선은 그저 유리하기만하여 일로 압록강반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고 국민의 마음속에도 일종의 안일감이 깃들리기 시작할때다.
물론 신문의 지도기사는 연일 멸적구국을 부르짖고 여성단체에서도 여기에 호응해서 일선장병의 노고를 망각한 총후사치를 극력으로 경계하고 있기는했다.
긴 치마를 입지말고 화려한 화장을 하지 말자는 여성운동이 일어나 백주 행길에서 여자경찰서원이 긴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인의 옷을 벗겨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여성들의 「미적생활」을 주장하는 그 반대경향이 바람에 날리는 겨자씨같이 사방으로 뿔었다.⁵⁰⁾

戰時라는 시간적 배경은 여성들의 생존본능을 가열하였다. “시민들은 어떤 새로운 경의의 출현을 기다려 감정의 도피를 갈망”하였고, 여성들은 “군복과 통바지와 악착한 생활”로 현실을 직시해

49) 『女人哀歌』, p. 133.

50) 『女人哀歌』, pp. 112~113.

나갔다.

실제로 장덕조는 기자로 문화부장으로 활약하던 중 9.28 수복, 1.4 후퇴 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결성된 육군중군 기자로 활약하며 반공주의 남성 문단권력자들과 성별 분업적으로 반민중적 독재 정권의 도우미 역할을 하였다. 당시 피난지인 대구에 머물던 장덕조는 군복 차림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7남매를 부양하는 가정주부 겸 검임 작가로 동분서주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⁵¹⁾ 어린 자녀와 가난한 살림에 호구지책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일차적인 물질인 쌀이 아쉬웠던 작가는 살림하는 주부의 처지와 입장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국전쟁 당시 중군한 작가의 역할에도 적용된다. 戰時 문화인의 임무는 예술작품을 통해 국민대중의 애국심과 전의를 고취시키는 일이었다. 즉 무력전에 있어서의 승리와 더불어 ‘자유 민주주의’ 이념의 승리에 대한 역사적·철학적 당위성을 예술로써 구현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독자들의 기호에 부합하여 대중성을 확보한 장덕조는, 『女人哀歌』를 통해 戰時와 전란가정(避難家庭)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국가 재건이라는 반공주의 요소로 봉합하여 작가적 인식을 선명히 부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장덕조 문학을 이해하는 지점은 기존의 보편적 전망과 시각이라고 여겨졌던 남성중심적 전망과 시각에서 탈피하여 시대적·사회적·문화적 관점과 재고되어야 한다.

『女人哀歌』는 1950년대 여성의 경험, 사고, 욕구 등 남성을 규범으로 보는 준거의 틀을 벗어나 담론적 지형을 상정하였다. 나아가 당시의 사회질서를 감지하고 여성 주체 ‘정념’의 표상을 반영한 다소 복잡한 양상의 문학임을 보여준다.

51) 이는 소설가 박영애 작가(장덕조 작가의 삼녀)와의 인터뷰(22년 10월 23일)를 통해 생생한 증언으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논문의 완성을 위하여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작가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를 올린다.

戰時상황임에도 『女人哀歌』에서 은영의 호화로운 생활은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반영한다. 가끔씩 정임과 형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영의 삼덕동 문화저택에 모여 고급 요리를 먹으며 그들이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담은 수다를 늘어놓을 때마다 은영은 친구들을 달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첫사랑 상대였던 송찬이 귀국하여 재회를 하게 되자 애증과 분노의 교차된 다변화된 감정으로 사랑의 도피(逃避)를 감행한다. 불륜을 향한 파국으로 결단한 은영과 송찬의 도피행은 수복된 서울에 머물며 비극을 향해 질주한다. K호텔에 은영의 방을 정해주고, 송찬은 친구 집에 머물면서 가끔씩 은영을 찾아가 외롭적인 몰아적 애정과 한결같은 사랑의 자세를 보인다.

요부(妖婦)와 절녀(節女)는 종이 한겹 차이다.

은영은 이제 상상이외로 허무하게 끌려들어온 송박사를 학대하고 농락하려는 잔혹한 마음을 짓잡을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불나비같이 날라드는 남자를 가진 악랄(惡辣)한 수단으로 변종하고 모욕했다가 최후의 타격을 주는 때의 쾌감, 그것만이 피나는 자기 과거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제 자기 과거의 모든 저주를 송찬 한사람의 신상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계모아래 자라던 서름, 사회의 압박, 남편에게 대한 원한, 이 모든 것을 다만 송찬의 일신에 덮어써워 여인으로써 꾸며낼수있는 잔학한 행동의 모든 방식을 연구해내려 다시한번 입술을 깨물어본다.⁵²⁾

실상 송찬은 은영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나, 은영의 집안이 몰락에 이르자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오랜 고민 끝에 미국으로 도피를 하여 그곳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인물이다. 따라서 은영이 내재한 정념 생성의 행로는 세 명의 여성 중 가장 난해

52) 『女人哀歌』, p. 90.

한 층위로 이행된다. 송찬의 배신에 대한 원망의 형성화는 송찬이 귀국했다는 기사를 읽고 원치 않는 결혼과 도덕적이지 못한 남편에 대한 상념 등이 분노의 감성화로 변형된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자 “견잡을 수 없이 심란한” 심정으로 거리를 방황하며 ‘공허한’ 정념화에 사로잡힌 은영은 갈등과 괴로움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은영의 모든 것을 가져가고 모든 것을 헌신같이 집어던진 남자”에 대한 분노를 삭이며, “곱게 화장을 하고 새옷을 입고 오독하니 앉아있으면 스스로 처량해지고 외로워”지는 기분과 “그같은 마음을 애닦아하는 것 보담 오히려 자학적(自虐的) 기분을 향락하려는 생각”으로 갈등하다가 운명처럼 송찬과 뜨거운 재회를 했다. “십 년동안 손을 곱아가며” 그리워했던 송찬을 만났지만 그에 대한 애증의 감정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사랑과 미움의 정념은 서로 충돌하여 자비 혹은 분노를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미움은 자신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는데, 이 목적이 행·불행을 좌우하며 변이(variation)를 보이기도 한다.⁵³⁾

『女人哀歌』에서 은영과 송찬의 애정 도피 생활은 이러한 대립적인 정념들의 변이에 따라 변화 곧 죽음으로 막을 내리며 완전한 반전을 보였다. 첫사랑의 완성, 진정한 사랑 등이 보여줄 수 있는 낭만성보다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현실적 장애를 뛰어넘는다는例外性を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전히 복수하고 싶은 여성의 妖婦 이미지와 숨결이나 피부감각뿐만 아니라 남성의 가슴을 물어뜯는다는 가학적(加虐的)인 묘사 등은 독자들에게 생생한 현실감을 전달해준다. 또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감각적 묘사의 분량도 상당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륜은 예외적인 사건의 돌출로만 그려지고, 그 예외성이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한다거나, 다른 사건을 촉발시키는 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나타나

53) 흙, 위의 책, p. 115.

지 않는다.

은영은 애증의 감당하기 어려운 ‘공허감’의 정념으로 긴 시간 고뇌하고 저항하면서 급기야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수리(受理)하는 한계를 보인다.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은영의 정념 행로는 분노라는 통합된 정념인 ‘공허감’의 애뜻하고 강렬한 양상으로 표상된다. 은영의 정념을 지배한 ‘공허감’은 불륜을 거쳐 도덕이 전달하는 윤리위반으로 치닫으며 죽음이라는 환원불가능으로 무의미하게 쇠퇴하게 된다.

라신느는 『페드라』에서 정념이란 “묶여 있는 자신의 포로에게 집착하는 비너스”라고 말한다.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은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이며, 인간은 정념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⁵⁴⁾ 라신느의 이론에 근거하면, 사랑의 열병으로 고뇌하던 송찬과 은영은 정념의 포로가 되었으며 정념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스스로를 대상에 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女人哀歌』에서 구성 방식을 매개할 때 ‘아메리카의 욕망’이 ‘접합(articulation)’되어 전후의 破局적 현실을 포착하고 있어 주목할만하다. 근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열망은 줄곧 근대화의 모델이었으며, 선망의 대상⁵⁵⁾이었다. 『女人哀歌』에서 아메리카는 교육이나 문명국가로서 양가적인 뉘앙스를 띤 채 매혹과 선망의 대상으로 표상된다. 이는 미국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송찬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식 장교복을 입은 어떤 신사”, “외국에서 말쑥한 군복이나 얻어입고 오는 사람이면 의례 무슨 이상의 남성이나 되는 듯 황홀해서 찬미하는” 정

54) 홍준표, 앞의 책, p. 44.

55) 미국은 물질문명의 고장, 무제한의 풍요와 자유의 땅으로 표상되었으며, 전후의 자유라는 명명 속에 미국에 대한 심상과 문화 지형을 내재하고 있었다(박승희, 「로컬리티와 1954년 대구-『마당깊은 집』을 중심으로」, 『인문연구』64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p. 67).

임과 형숙의 태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어데서 댄스곡이 들려온다.

「아이 키스 유어 핸드 마담」이라는 탱고 곡이었다.

정열적인 몸시 서정적인 곡조다. 은영은 화장석 문주(門柱)를 가만 가만 어루만지며 그 서정적인 곡조를 들었다. 근처에 있는 외국군인들의 합숙소에서는 오늘도 파 - 티가 있는 것이라. 탱고가 끝나고 이번에는 우아한 왈츠곡이 흘러나온다.⁵⁶⁾

위 인용문에서 은영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멀어지고, 스무살 위의 남편마저 출장을 구실로 밖으로만 도는 상황”에서 공허한 삶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혼자서 ‘댄스’를 추며 자신을 위로한다. 서구화·현대화된 의식주를 갖춘 은영은 외국잡지와 신문도 구독하며 패션, 화장품, 헤어 등에서 중산층 지식 계층의 욕망과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한다. 특히 전쟁 후 불안과 궁핍 속에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떠안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미국문화는 황홀한 문명이며 새로운 타자이자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모방해야 할 이상(理想)으로 작용한다.

전후에는 일탈과 방종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으며 당대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풍속이 “댄스”였다. 이러한 풍속은 소설(정비석, 『자유부인』)이나 영화⁵⁷⁾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당시의 지면에 외간 남자와 간통하고 본 남편과 재산상 문제로 법정에서 서게 된 ‘朴富美 사건’이나, ‘쌍벌 간통 제1호 사건’ 등이 연일

56) 『女人哀歌』, p. 23.

57) 1956년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원작: 정비석, 『자유부인』), 15만명의 관객을 동원, 박암·김정림·주선태 출연.

1957년 윤봉춘 감독의 〈다정도 병이런가〉(원작: 장덕조, 『다정도 병이런가』), 최은희·김웅·이예순 출연.

1958년 박상호 감독의 〈장미는 슬프다〉(원작: 장덕조, 『장미는 슬프다』), 김동원·김지미·한미나 출연.

신문을 장식하고 있었으며, 댄스홀을 무대로 춤바람 난 여대생을 70여명이나 농락한 한국판 돈 주앙 ‘박인수사건’은 그 절정이었다. 이는 전후 ‘사교’와 ‘자본’, ‘퇴폐’와 결부된 풍기(風氣)가 여성의 정념에 미친 영향을 짐작케 한다.

‘정념’이 표출되는 상황, 원인,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정념’화 된 주체의 형성은 사회적, 심리적 요소에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피란(避難)상황이라는 환경과 개인적인 상황이 어우러져 여성 주체의 내부감각에 변화를 일으킬 기질을 보유하고 있기에 주체의 형성화가 이루어진다. 이후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면 정념적 형상화가 표출되어 감성화 단계에 이른다. 감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자극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감성화는 정념화된 주체의 스타일을 규정하며 주체의 역량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단계이다. 나아가 예민한 기질적 가치를 경험하는 단계 곧 ‘정념’을 실현하는 단계가 정념화이다. 이때에는 주체의 행로에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의해 정념적 사건이 발생한다. 이러한 정념 도식의 단계로 형숙, 정임, 은영의 ‘정념’화 된 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女人哀歌』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군열에 의해 빚어진 여성 주체의 삶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조명된 요소는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戰時라는 절박한 생존의 논리 속에서도 이념과 풍속, 애정담을 구비하는 탁월성은 『女人哀歌』가 대중성을 확보한 까닭을 가늠하게 해 준다. 아메리카의 환상과 더불어 소설의 후반부에서 가시화하는 반공 이념은 당대의 현실을 투명하게 표출한 ‘창’ 혹은 ‘열쇠’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女人哀歌』에서 ‘정념’의 표상이 정신적인 갈등과 투쟁으로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4. 나오며

본고는 1950년대 장덕조 소설의 『女人哀歌』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정념’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표상으로 나타났는지를 고찰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숙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며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애착 관계의 형성으로 ‘기대감’을 반복한다. 한편으로 난봉(외도)을 피운다는 의심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분노라는 감성화 단계를 거쳐 외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남편으로 인해 공격적인 정념화를 표출한다. 형숙이 격렬한 정념을 표출하는 공격적인 대상은 주로 기생이나, 다방마담, 양갈보, 유엔 마담 등이며 정임과 함께 미장원에 들렀을 때 이들에 대한 공격성을 수다를 통해 발화하게 된다. 남편의 애정 잦대에 따라 내장된 공격성의 정념이 발현되거나 약화되기도 하며 작품 후반부에서 임신으로 강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둘째, 정임은 전시 상황에서 퇴보적인 모습과 무능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남편으로 인해 피난지를 주선하며 이후에도 생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담배장수, 딸라장수를 하는 등 가난과의 고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장에 대한 원망이라는 감정을 형성화한다. 생존 전쟁을 치르던 살벌한 피난지를 떠나 수복 서울로 돌아오는 차편을 구하는 것도 정임의 몫이었다. 귀환 후에도 생계형 주부로 가정을 이끌어 가던 중 본의 아닌 남편의 요정 출입을 우연히 목격한 정임의 분노로 감성화된다. 요정 출입을 하는 상황을 친구인 형숙인 함께 목격한 사실이 더욱 분노에 이르게 하여 결국 ‘실망감’이라는 정념화에 쌓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급기야 남편은 집을 나가게 된다. 이후 2차 피난지인 부산에서 재회한 남편은 반성과 자책을 보이며 남편으로서의 질서에 안착하려는 이미지의 방향

전환을 보이는 등 역동적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은영은 집안이 몰락하자 연인의 복잡한 상황을 뒤로한 채 미국으로 도피한 첫사랑 송찬의 배신이 형성되어 스무 살이나 연상인 재력이 변호사와 결혼을 한다. 은영의 남편은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밖으로만 나돌며 신혼 3개월 쯤 은영에게 자궁병을 옮겨 불임 판정을 받게 하는 상황이 분노의 감성화를 고착화한다. 이에 은영은 별거나 다름없는 무미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던 중 미국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송찬이 옛 연인인 은영을 찾아오게 되자 복수의 심정으로 그를 파멸하고자 불륜의 만남을 지속한다. 그러나 이들의 불륜이 알려지게 되자 ‘공허감’의 정념에 괴로워하던 은영은 송찬과 동반자살을 하게 된다.

『女人哀歌』의 여성 주체는 전후의 혼동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현 실존의 중핵을 구성하는 파토스의 상실을 두려워”⁵⁸⁾한다는 의미에서 주체적 ‘정념’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장덕조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당대의 이러한 심리적·의식적 사태로서 우리 삶의 다양한 ‘정념’에 접근하여 충동·본능·감정의 지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950년대 장덕조 소설의 대중성은 친숙한 연애소설의 문법뿐만 아니라 당대 대중적인 기호나 취향을 어떻게 호출하고 문맥화하였는가의 부분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女人哀歌』는 전후 사회상을 반영하는 여성인물을 초점화하여 당대의 사회문화적 보편성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대중적인 기호나 취향을 문맥화하여 주요 여성 인물의 ‘정념’을 구체적으로 조망하고 추적하였다.

이처럼 『女人哀歌』를 통해 전쟁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숭한 변화의 여정을 거친 여성 인물들의 다양한 ‘정념’을 발견할 수 있다. 형숙은 근대적 문물을 상징하는 미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

58) 알렌카 주파치치, 이성민 역,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b, 2004, p. 28.

하는 인물로, 미국에서 귀국하여 의사인 남편을 통해 자신의 집에 머무는 송찬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아메리카의 욕망에 대한 환상과 찬미의 태도를 드러낸다. 역사적 격동 속에서 어머니나 아내로서 억척스러움을 보이는 정임은 헌신의 모성으로 표상되는가 하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반공주의의 요구에 확장된 사고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은영의 불륜과 정사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당시의 복잡다단한 상황을 도덕적 정서로 봉합하며 애국과 반공 서사로 규범과 체제에 종속하는 1950년대 시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여성 인물의 정념화가 사회적 통념에 대한 미세한 균열을 초래하였을 뿐, 국가 재건의 정당성을 근거에 두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관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이다. 1950년대 장덕조의 문학이 작가의 편파적 시각이 내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작가로서의 큰 위상은 보다 면밀하게 고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950년대 대중소설작가로서의 명망과 소설사적 위치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장덕조 소설의 제반 특징이 드러난 그의 문학에 대한 정치한 연구는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張德祚, 『女人哀歌』, 英雄出版社, 1954.
 張德祚, 『張德祚 엽서이 - 일곱장의 편지』, 宇宙, 1981.

〈논문〉

- 김덕호,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미국화와 탈미국화 :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소비와 미국화 문제」, 『미국학논집』 제37권 3호, 157쪽, 2005, p. 157.
 김복순, 「반공주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 『문학과영상』 vol5, 문학과영상학회, 2004, p. 27.

- 김연숙, 「戰爭 經驗과 避難社會의 家庭 - 張德祚의 『女人哀歌』(1953)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제47권 제4호, 2019, pp. 224~250.
- 박승희, 「로컬리티와 1954년 대구-『마당깊은 집』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4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p. 67.
-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14권, 2003, pp. 251~260.
- 양진오, 「『마당깊은 집』은 대구를, 대구는 『마당깊은 집』을 어떻게 기억하며 기억해야 하는가?」, 『韓民族語文學』第66輯, 2014, pp. 532~555.

〈단행본〉

-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 이명호 외 지음, 『감정의 지도 그리기-근대/후기 근대의 문학과 감정 읽기』, 소명출판, 2015.
- 알렌카 주파치치, 이성민 역,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b, 2004.
- 김 진,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읽기』, 세창미디어, 2013.
- 신영덕, 『한국전쟁기 중군작가연구』, 국학자료원, 1998.
- 홍정표, 『정념 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투고일: 2023. 01. 31 심사완료일: 2023. 03. 20 게재확정일: 2023. 3. 22)

김윤서

소 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 소: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47길 16 104동 501호

전자우편: agape@ynu.ac.kr

[Abstract]

**Representation of “Passion” of Female Subject Inherent in
Jang Deok-Jo’s Novel in the 1950s**
– Focusing on Women’s Elegy –

kim, Yun-Seo

This study examined how the internal conflicts of female characters appearing in Deok-jo Jang’s novel 『Woman’s Elegy』 in the 1950s became the subject of ‘emotion’ in the work. The results are as follows.

Hyung-sook is a person who affirms the perception for American culture, which assumes modern civilization. She expresses the attitude of admiration and fantasy for America’s desire, and expresses the emotion of 'anticipation' against the husband who commits adultery. In the midst of the turbulent war situation, Jung-im, who shows resilience due to her husband’s incompetence and bystander attitude, reflects the emotion of 'disappointment.' Eun-young reveals her emotion of 'emptiness' due to the betrayal and reunion of her first love, Song-chan, and her unhappy marriage with her husband. At the same time, she reproduces the limitation of customs through the tragedy of committing double suicide.

Key words: Deok-jo Jang, 1950s, women’ s lament, subjects, emotion, disappointment, aggression, anticipation, emptiness.

